

# 이개호 장관, 한국쌀전업농 전국대회 참석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월 28일 강원도 양양에서 열린 '제6회 한국쌀전업농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하여, 농업인 및 관계자 등을 격려하고, 식량산업 발전 유공자(9명)를 표창했다.

이개호 장관은 기념식 축사를 통해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태풍 등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경영과 생계에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 쌀산업이 만성적인 수급 불균형 등 계속되는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새로운 인식의 전환과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소득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개편, 품질 중심으로 생산·유통구조 혁

## 식량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 및 농업인·관계자 격려



신 등 새로운 쌀산업의 틀을 농업인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재원 사무관 044-201-1832) /이민행 대표기자

## 김영록 지사, 전남 일자리 행복시대' 정책 발표

시·도지사 간담회, 사이언스파크한전공대 유치 등 계획 밝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및 한전공대 설립 지원 등 건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시·도지사간담회에서 '내 삶이 바뀌는 전남 일자리 행복시대'를 주제로 지금까지 추진했던 일자리 우수사례와 앞으로의 일자리 계획 등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4년제 대졸 취업자의 다른 지역 유출이 심각

한 상황에서 도민들이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있다"며, "도는 도민이 행복한 전남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예측, 일자리 사업 기획집행, 취업창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일자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남 일자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러 청년활동가가 마을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농촌 변화를 주도하는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와,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노후화된 양곡창고를 복합 문화공간이자 청년창업공간으로 탈바꿈한 '순천 청춘창고'를 전라남도의 대표적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대규모 창업벤처타운을 조성해 창업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2천개와 자립형 마을공동체 1천개를 육성해 사회적경제 일자리를 대폭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스마트팜스마트양식스마트축산단지 등 농수축산업 혁신벨트를 조성해 청년 창업농을 대거 육성하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에너지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해 기업 1천 개와 한전공대를 유치할 것"이라며, "또한 첨단 신소재 산업을 활성화해 2차전지, 마그네슘 소재 산업 등으로 매출액 10조 원을 달성하고, 남해안 관광휴양벨트를 구축해 관광객 6천만 명 시대 조기 달성과 관광서비스 일자리 1만 개를 신규로 창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자치발전비서관 등을 만나 ▲전남 현안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기반 구축 ▲세계적 수준의 한전공대 설립 지원 등 18건의 지역 현안사업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일자리정책과 286-2120) /이민행 대표기자

## 이용섭 시장-김영록 지사,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개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지난달 20일 전남도청에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민간 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를 가졌다.

이번 위원회는 2014년 10월 출범이래 4주년을 맞이한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민선7기 광주·전남상생방향 및 주요 현안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는 ▲광주 민간공항·무안국제공항 통합 ▲광주 군공항 이전 협력 ▲한전공대 설립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등에 대해 전격 협의했다.

위원회는 무안국제공항을 국토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고,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군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면 군공항도 전남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하고, 전남도는 이전 대상 지자체, 국방부, 양시·도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전 조례를 올해 말까지 제정하고, 바로 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전라도 정도 천년의 해를 맞아 광주시와 전남은 미래 천년을 희망과 번영의 땅으로 일궈 나가기 위해 하나의 공동운명체로 함께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광주와 전남의 현안인 민간공항 및 군공항 이전, 한전공대 설립, 국정과제인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등을 공

민선7기 주요 현안 해법 모색...2021년까지 광주공항·무안국제공항 통합  
군공항 이전 협력한전공대 설립·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전격 합의



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를 올해 말까지 제정하고, 바로 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전라도 정도 천년의 해를 맞아 광주시와 전남은 미래 천년을 희망과 번영의 땅으로 일궈 나가기 위해 하나의 공동운명체로 함께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광주와 전남의 현안인 민간공항 및 군공항 이전, 한전공대 설립, 국정과제인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등을 공

동으로 협력해 동반성장의 모범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역사·문화적으로 한 뿌리이자, 경제적으로 뿔해야 때낼 수 없는 경제공동체인 광주·전남이 서로 상생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정신이 필요하다"며, "전라남도에는 광주·전남의 공동번영을 위해 상생과 순리로 광주시와 소통과 협력을 공고히 하여 다가오는 새천년, 지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선물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담당관실 613-6190) /이민행 대표기자

# 盧嶺 敲



이민형  
CEO 편집인

## 人乃天 사람이 곧 하늘이다

### ◆전통시장

전통(傳統)의 사전적 의미는 "과거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바람직한 사상이나 관습·행동 따위가 계통을 이루어 현재까지 전해진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옛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고유의 습성과 문화를 일컫는 말이다.

전통시장 하면 우리 전통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여기는 게 일반적 상식이다. 그러나 수입 농수축산물이 준비하게 되면서 수입 소고기까지 파는 가게가 자리 잡고 있어 일반대형마트와 다를 게 없다. 전통시장도 소비자 심리에 맞춰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농어민직영매장'을 도입해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을 접할 수 있게 해야 시장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우리 농수축산물을 찾는 소비자는 농·축·수협에서 운영하는 마트를 찾게 된다. 농축수산물 등은 수입 농수축산물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특색시장을 이용해 대도시의 농·축·수협의 마트가 증가하고 있다.

무안농협이 하나로마트 개장을 추진하며 무안을 전통시장과 마찰이 있는 것 같다. 전통시장은 생존권을 역설하고 있고, 무안농협은 조합원의 뜻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대학(大學)에 "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심불재연 시이불견 청이불문). 마음이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으며,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마음을 읽어야 하고, 어떤 식품류를 원하고 있는지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무슨 서비스를 바라고 있는지 귀로 듣고 냉철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 ◆교통량도 많지 않는 함평군 도로 확장

함평군이 민선67에 양림교차로에서 주포로 진입하는 도로 3.4km를 신설 및 확장하기 위해 순수 군비 5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설계용역 등 선급금으로 2억3천9백만원을 지출했다고 한다.

민선7기 들어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교통량도 많지 않고 불필요한 사업으로 결론 내리고 사업을 중지하기로 했다. 다행히 선급금으로 측량 등 실시설계용역비는 제외하면 1억원 넘게 회수할 수 있다고 하니 그나마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법구경에 "蓋屋不密 天雨則漏(개옥선밀 천방치류). 허술하게 덮은 지붕은 비가 샌다"고 했다. 공무원이 일을 구상함에 있어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하는 자세를 갖자.

### ▶함평 '명암축산농단지'

국토교통부는 명암축산특화농단지 일대를 '2017 발전축진형 투자선도지구'로 선정했다. 국비 100억원과 민간투자 등 총사업비 1382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32만㎡ 규모로 완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산단 조성 과정에서 조성 대금 중 일부를 분양용지를 대물로 중앙 부위를 주기로 했다는 설이 있다.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 한 기운대 땅을 주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사실이라면 좌우 땅이 원만히 분양될지 걱정이 앞선다. 시공 업체는 동향 평산단을 조성한 업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서삼석 국회의원 열정

서삼석 국회의원이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초선의원으로서 지역구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는데 다선의원 못지않게 활약하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 8월 29일 예결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신안군 흑산도의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현상으로 피해를 양식장의 대책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대응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고 한다. 또한 영암·무안·신안군의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획기적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도출해 냈다고 한다.

서 의원은 특히, 섬 지역을 순회하는 병원선에 대해서도 '병원선 운영비를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하여 기재부 차관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아 냈다고 한다.

시강에 "晝爾於茅 宵爾索綯 亟其乘屋 其始播百穀(주이우모 소이색도 극기승옥 기시백곡). 낮에는 더위를 하고, 저녁에는 새끼를 꼬고, 지붕을 이고, 그리고 곡식을 뿌려라"고 했다. 서 의원은 군수 3선을 통해 이영을 준비하고, 그 후 10년간 새끼를 꼬었다. 이제 국민과 지역구민에게 눈비와 비를 가려주는 지붕을 이고 있고, 씨앗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의정활동에 찬사를 보낸다.

人乃天(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주간 盧嶺新聞 www.rorynews.kr

대표 임재상 · 편집인 이민형

E-mail: muan3521@hanmail.net/hpcj3355@naver.com

신문윤리강령  
주간 노령盧嶺은 신문윤리 강령과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역 주민들에 대한 따스한 애정으로 미래의 꿈과 희망을 대변할 것입니다.

•등록번호: 전남 다 0031  
•발행소: 전남 무안군 무안읍 명성2길 15  
•인쇄소: 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길 인길93-10)

구독료: 월 5,000원  
납부계좌: 농협 351-0934-9171-73 (예금주 주간노령)